

시끌벅적 e-스타



88만원으로 사는 젊은이들의 '슬픈 가계부'

극심한 취업난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20대들의 서글픈 이름 '88만원 세대' 20대 비정규직 평균 임금인 88만원, 그래서 생겨난 신조어가 바로 '88만원 세대'이다. 88만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의 슬픈 가계부가 동영상으로 만들어졌다.

'슬픈 88만원 세대 가계부'라는 이름으로 포털사이트 다음에 등장한 동영상은 6만 네티즌의 관심을 받았다. 동영상상을 올린 네티즌은 "한 해 등록금만 전만원이 넘는데 졸업해서 받을 임금이 88만원이라는 생각에 앞날이 답답하다"는 심경도 덧붙여 놓았다.

동영상에는 미혼남녀를 기준으로 만든 한달 가계부가 등장한다.

월급 나오면 가장 먼저 걱정하게 되는 공과금부터 살펴보면 이렇다. 전화요금 7만원, 전기세 2만원, 수도세 1만원. 여기

서 끌나는 게 아니다 의료보험에 국민연금, 난방비, 인터넷비 기타 관리비까지 합치면 공과금만 25만원 정도가 나온다.

어찌됐든 먹어야 산다. 아침은 대충 굽는다 치더라고 점심, 저녁 쟁게며 으려면 한끼 5천원 기준으로 30만원이 사라진다. 밥값 생각하다 보니 '밥은 먹고다니나?'라는 영화 '살인의 추억'의 대사가 절로 생각 난다.

출퇴근하는데 필요한 것 또한 돈.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6만원은 금세 사라진다.

아끼고 아껴 7만원을 용돈으로 쓰고, 미래를 위해 20만원을 적금에 넣다보면 88만원은 볼에 눈농듯이 사라진다.

하지만 집세는 어찌란 말인가? 결론은 이거나. 열차없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알바를 더 뛰는 수밖에 없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용수의 팝스 칼럼



며칠 전 필자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청취자 참여 코너에 한 여성 자가 전화를 걸어 지금은 학교생이 바뀐 모교의 선생님을 찾고 싶다고 밝혔다. 사연이 소개된 직후 그 선생님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는 또 다른 청취자의 전화가 걸려 와 사제지간의 만남이 주선되는 기쁨을 누린 적이 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시대는 각각 다르겠지만 잊지 못할 선생님이 분명 계실 것이다. 오늘은 그 선생님을 생각나게 하는 프랑스 상송 가수 Enrico Macias(앙리코 마시아스)의 노래를 소개하고자 한다.

앙리코 마시아스는 알제리에서 유대교도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 안달루시아 음악을 연주하던

을 선사한다. 지금까지 발표한 노래는 주로 조국에 대한 사랑과 인류의 평화 그리고 아이들을 소재로 하고 있다. 그가 부르는 평화의 노래는 전 세계인의 마음에 인종이나 종교를 초월한 평화와 관용의 메시지로 울려 퍼졌고, 이러한 그의 활동에 80년 쿠르트 발트하임 유엔 사무총장이 그에게 유엔 평화의 기수라는 호칭을 주었고, 97년에는 유엔 평화대사로 위촉이 되었다.

오늘 소개할 곡은 앙리코 마시아스가 1982년에 발표한 L'instituteur(선생님)이라 곡이다. 이 곡은 그가 노래를 하기 전, 아이들을 가르치던 지난 시절을 회상하면서 만든 곡으로 그가 노랫말을 쓰고 프랑스 상송계의 히트곡 메이커인 Didier Barbelivi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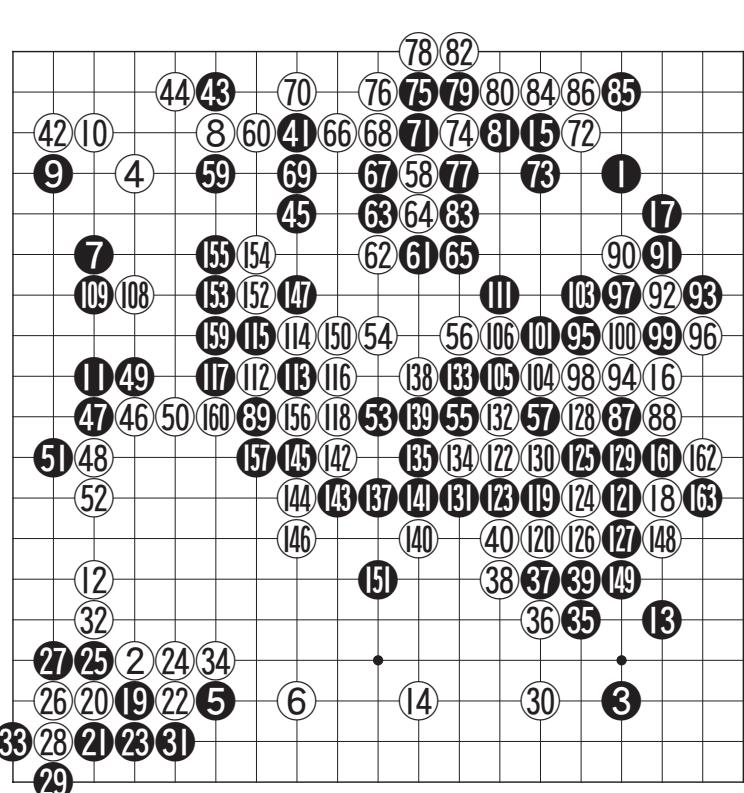
동심 바라보는 선생님 모습 담긴 'L'instituteur'

바이올린 주자 아버지의 영향으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좋아했다. 열다섯 살 때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버지가 활동했던 오케스트라의 정식 단원이 되어 연주 생활을 했다. 하지만 미래의 불확실함을 느낀 그는 음악을 떠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의 가르치자마음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고 아내와 함께 프랑스로 이주를 한다. 그러나 프랑스로 떠나기 전 알제리에 내전이 발발해 그의 어머니와 누이 그리고 장인마저 전쟁에 희생되고 만다. 가족들의 희생을 본 앙리코 마시아스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평화를 희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노래를 부르기로 결심한다.

프랑스 이후 후 60년 발표한 첫 앨범에서 그는 페니버린 조국 알제리에 대한 깊은 향수를 표현했다. 64년 올랭피아 극장에서의 공연으로 그는 가수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 이국적인 창법으로 동양적 분위기를 풍기는 그의 부드러운 저음 목소리는 동양인들에게는 친근감을, 프랑스인들에게는 이방인의 향수와 함께 아름다운 멜로디와 어우러진 감동

(디디에 바르블리비앙)이 작곡을 했다.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로 시작되는 이 곡은 동심을 바라보는 자상한 선생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 앙리코 마시아스와 아이들의 목소리에는 칠판에 시를 적고 기다로 노래를 가르치는 선생님과 그것을 배우는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는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친 것이지만 그 아이들은 선생님의 자신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내용의 노래이다. 앙리코 마시아스가 부르는 평화의 노래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그가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노래를 들으면서 초등학교 시절을 회상해 본다. 풍금을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던 선생님의 모습, 당시 담임선생님은 노래를 못하던 깨닫기 몇마디에 웃을 시간이면 다른 반 여선생님께 수업을 맡기시곤 했다. 선생님께 잘 보이려고 두 손을 모아 예쁘게 노래하던 어린 시절의 내 모습, 앙리코 마시아스의 노래는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다시 내게 들려준다.

〈팝컬럼니스트·광주교통방송 '능민이 있는 곳' 진행자〉



제4호 전남도지사배 전국아미최강전

심재욱의 완승국 총보(1~163)
白 박성균 7단
黑 심재욱 6단
(경원)

이지역 아마바둑계는 오랫동안 신진고수들이 등장하지 않아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

그나마 순천의 조민수 7단이 홀로 고군분투하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인데 최근 심재욱 6단이 육일승 천의 기세로 각종 대회에서 활약을 하고 있어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전남도지사배 대회에서도 조민수 7단이 1회전에서 패배, 홀그라운드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부진한 데 비해 심 6단은 본국의 박성균 7단·이학웅 7단 등을 연파하고 결승에 진출하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 바둑은 심재욱 6단이 자랑할만

한 깨끗한 승리였다. 포석부터 심재욱 6단 취향에 맞는 구도로 진행이 되었고 접근전이 벌어질 때마다 드롭을 올려 박성균 7단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특히 종반의 중앙전투에서 보여준 심재욱 6단의 치치하고 깊은 수읽기는 최근의 상승세가 우연히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박성균 7단이 국후 두고두고 후회 한 수는 상변에서 백 86으로 이은 수. 수로 중앙에 먼저 두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흑이 승기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즉 163수 끝. 불계승.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차민수 4단 연승 질주

차민수 4단이 제2기 지지옥션배 여류 대시니어 대항전에서 연승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차민수는 14일 한국기원에서 열린 이 대회 본선 5국에서 김선미 2단을 241수 끝으로 불계로 물리치며 파죽의 5연승을 달렸다.

지난 대회 조현훈 9단이 세웠던 이 대회 최다 연승 기록(6연승)도 갈아치울 기세다.

차민수는 15일 이민진 5단을 상대로 6연승에 도전한다.

이 대회는 제한시간 각자 10분 30초 3회 덤 6집반으로 진행된다. 상금은 우승 7천만원이며, 각 대국자에게는 대국 본선대국료 40만원이 지급된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5일(음 4월 11일 乙卯)



36년생 좋은 하루가 될 것이니 주변에 성덕을 베풀어라. 48년생 같은 일이 생기려는 징후가 보인다. 60년생 소란스런 상황에서 어려나거나 아픈 일은 아니다. 72년생 길보는 풍을 조심하라. 84년생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타나리라. 행운의 숫자 : 21.25



37년생 이는 길도 물어서 가야 할 곳이다. 49년생 배비가 불어와도 자신이 빠지지 않으면 되리라. 61년생 자신의 행운은 주인만이 이를 수 있다. 73년생 노는 곳을 피하라. 85년생 근거리의 여행은 같을 수 있다. 74년생 운연이 좋은 일로 연결이 된다. 행운의 숫자 : 05.26



38년생 부모 형제와 불편 일이 생긴다. 60년생 조급만 인내하라. 사비가 생길까. 62년생 그동안 기다렸던 일은 성과가 될 가능성이 보인다. 74년생 우연한 인연이 좋은 일로 연결이 된다. 행운의 숫자 : 08.37



39년생 친지들의 시기가 보이려고 하니 다시 한번 주변을 살펴보라. 51년생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하니 꼭 가야할 곳만 가야한다. 63년생 자신의 건강도 살펴봐야. 75년생 근거지의 여행을 갈 수 있다. 73년생 노는 곳을 피하라. 행운의 숫자 : 17.29



40년생 새로운 문서가 있으나 신봉지가 많다. 52년생 균친지로 인해서 손해가 생길 수도 있다. 64년생 첫째도 조심이요 둘째도 조심을 해야 할 하루다. 76년생 기대했던 협력자는 없으니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7.40



41년생 부부간의 불편은 사소한 관심에서 온다. 53년생 제사가 올립고 잘 풀리지만 조심은 하다. 65년생 흥망이 다가오니 가서 맛을 보거나 잘 풀리지만 조심은 하다. 77년생 육심은 글입니다. 버리면 얻으리라. 행운의 숫자 : 09.30



42년생 좋은 일은 있다. 54년생 물에 맞는 계획을 세우면 반드시 밝은 성공이다. 66년생 세밀한 설계도와 비상대책은 꼭 세워두라. 갑자기 다가온다. 78년생 열병은 한순간이나니 너무 속태우지 마라. 행운의 숫자 : 14.38



43년생 좋은 생각이 좋은 인연을 만드니 심사를 곱게 쓰라. 55년생 서두르지 않아도 자연스레 이루어리라. 67년생 사기에 휘말리는 것은 자신의 사기도 한 목을 한다. 79년생 가까운 이웃이 협조자로 등장한다. 행운의 숫자 : 12.30



44년생 이사변수가 있으니 준비를 하라. 56년생 밖을 지나는 일은 잘 되려면 내사를 잘 다스려야 가능하다. 68년생 자신의의 불편은 흔자지 감수하라 식구에게 번질라. 80년생 처음 가는 길이지만 재미가 있다. 행운의 숫자 : 03.45



45년생 흥한 것이 오히려 복으로 변한다. 57년생 일곱에 흥한 일을 맡라 조심은 무선이다. 69년생 안과 밖을 넘는 동시에 주의 하라. 그러면 큰일은 없다. 81년생 좋은 것은 좋은 때 지켜라. 행운의 숫자 : 11.34



46년생 신사가 생기지만 주의도 기울이라. 58년생 물건을 찾았을 때 찾는 기분이다. 70년생 표리가 부동한 친구를 피해야 하리라. 82년생 과육은 불편하니 과육을 버리면 편안한 흥으로. 행운의 숫자 : 01.35



47년생 신문서와 구문서가 교체된다. 59년생 기쁨도 크지만 고생도 크다. 71년생 기대했던 즐거운 일은 오하여 실망을 가져온다. 83년생 부모 형제의 충고를 들으면 자자기지도 떠를 얻는다. 행운의 숫자 : 06.28

www.cafe.daum.net/sajoo114 ☎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틱 브랜드

제품구입문의: (주)효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1160>

오하요우 니흔고 <1160>

니하오 쟁구워 <137>

한자 이야기 <777>

How was the drive?

운전하기는 어땠나요?

A : I didn't realize that you were in town.

B : I came in last night.

A : Great! How was the drive?

B : No problems.

A : 저는 몰랐습니다. 선생님께서 시내에 계시다는 것을요.

B : 어제 밤에 도착했습니다.

A : 그렇군요! 운전은 어땠습니까?

B : 좋았어요.

* drive : 운전

* realize : 깨닫다

* 저는 몰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 I didn't realize what had happened.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생신이라는 것을요.

= I didn't realize that you had a birthday

掛け(かい)け間違(まちが)いのようですね

잘못 건 것 같습니다

A :もしもし、成田(なりた)さんのお宅(たく)ですか。

B :いいえ、違う(ちが)いますが。何番(なんばん)にお掛け(か)けですか。

A :3351(の)1103じゃありませんか。

B :いいえ、掛け(か)け間違(まちが)いのようですね。

A : 여보세요. 나리타 씨 맥입니다.

B : 아니오, 틀렸습니다만,